

5년만의 일본나들이와 여창낙수



정장섭
(본회 상임고문)

여창낙수라 작은 제목을 달고보니 필자자신도 얼른 이해가 안간다. 한자로 旅窓落穂 로 변환해보니 알만하다. 구닥다리 글 쓰는 버릇이 PC로 글을 입력하면서도 그대로 남아있으니 나도 확실하게 늙기는 늙은 모양이구나. 각설하고 지난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눈이 망가져서 움짱 못하다 실로 5년 만에 일본을 다녀왔다. 나는 지금 메모도 못하고 취재나 자료를 읽을 수가 없기에 귀로 들은 정보 중에서 기억을 더듬어서 '여창낙수'라는 제하에 읽을거리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철도역사 100여년 만에 지난 4월1일부터 고속철이 개통되었다. 세계 몇번째(?)고속철 보유국이 되었음을 자랑하면서... 용산역에서 08:30에 출발하여 11:30분에 부산역에 도착. 과연 빠르구나. 그러나 터널을 지날 때의 굉음이 나에게 겁을 주었다.

부산역에서 함께 여행에 나설 엄군섭 회장과 황봉규, 박명환동지와 합류하여 국제여객부두에서 비틀(Beetle)이라는 이름의 쾌속정을 탔다.

12시간 항로가 3시간으로 단축되다니...

15:30분에 출항하여 일본 규슈의 하가다(博多)항에 도착하니 18:30분이었다. 세 시간의 항로. 이날은 현해탄의 파도도 잠잠하고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다. 배를 탔는데 '시트벨트'를 매라는 이유를 알만하다. 문득 나는 38년 전인 1966년에 난생 첫 해외여행으로 일본으로 건너갈

때의 일이 회상되었다. 그 당시는 돈이 없어서 여비를 아끼려고 배를 탔다. 한수환(韓水丸)이라는 배로 시모노새끼(下關)까지 12시간 걸리던 뱃길이 세 시간에 항해하던 비상을 하니 놀랍다. 스피드시대를 실감하였다. 38년 전에는 돈이 없어 배를 탔지만 이번에는 휴가철이라 비행기표를 못구해서 배를 탔다. 격세지감이 있다. 엄군섭회장의 설명에 의하면 배를 타고 1주일간 유효의 JR PASS(일화 28,300円)을 구입해도 항공편보다 싸다고 한다. 업무상 바쁜 출장이 아니고 시찰이나 관광목적의 여행이라면 선편과 JR PASS를 연계하면 경제적이고 더 많이, 더 멀리, 더 여러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다. JR PASS는 국내 여행사에서 판매한다.

38년전에는 일본의 신간선(新幹線)이 신오사카(新大阪)에서 도오교(東京)까지만 달리고 있었다. 지금은 큰 섬 네 개로 된 일본이 터널과 다리로 모두 연결하여 이제 일본은 실질적으로는 섬나라가 아니다. 길고 긴 국토를 신간선은 남쪽 끝 가고시마(鹿兒島)에서 북쪽은 모리오카(盛岡)를 지나서 아오모리(靑森) 근처 하찌노에까지 달리게 되었으니 미구에 홋카이도(北海道)까지 뻗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번 여행은「효소의 세계사」창립50주년기념대회에 시마모토구니히코(島本邦彦)회장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단법인 한국퇴비농업기술인협회가 미생물(효소)을 이용한 퇴비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개발한 원조가「효소의 세계사」이다. 엄군섭 회장은 15년 전에「효소의 세계사」와 제휴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인 이 기술을 국내에 널리 보급하여 전국적으로 그 뿌리가 튼튼하게 뻗어나고 있다. 기술제공처의 경사스러운 창립50주년행사에 나도 덩으로 따라나선 것이다.

성대한「효소의 세계사」창립 50주년 행사

일본의 가장 큰 호수가 비와코(琵琶湖)이고 교오토(京都) 인근에 있다. 7월 22일(목) 13:30분에 오오즈(大津)의 호반에 있는 비와코호텔의 컨벤션홀에서 50주년 기념행사가 성대하게 개막되었다. 이 행사를 소상하게 소개할 지면이 없지만 날더러 한마디로 평하라면 '성대하고 다채로운 호화판' 행사였다. 순서에 따라 나도 요청에 의해 미리 준비해간 짬막한 축사를 했지만 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엄군섭 회장이 맨 먼저 이 기술의 국제적인 보급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고 만당의 박수를 받았다. 그리고 체



▲ 7월22일 비와코 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효소의 세계사」 창립50주년 기념대회에서 필자 정장섭은 우리말로 축사를 하고 일본말로 번역된 원고를 뒤이어 동행한 황봉규 동지가 읽고 있는 광경.

험발표 때도 이 기술이 보급되고 있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대표보다 엄 회장이 첫 번째로 발표하였지만 발표내용도 가장 알차고 우수하였다. 우리한국의 퇴비농업기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박수를 받았다. 유명인사(스님)의 초청강연은 청중을 웃기면서 구수한 입담으로 연설하는데 내용은 '근본'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박과 식대까지 포함된 금액이지만 1인당 참가회비가 일화 3만 엔(?)이나 참가인원은 300명은 족히 되어 보였고 부부참가가 많았다. 1부 기념식과 2부 초청강연에 이어 3부에는 여흥행사로 일본전통 가무가 공연되었다. 타악기(큰북)의 공연

에 박수를 보냈다. 이튿날은 시찰과 관광이 예정되어 있었다. 초청받아서 이곳까지 왔으면 이틀째 행사까지 참석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러나 나는 시마모토회장에게 작별인사와 양해를 얻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스즈키마사히로(鈴木雅宏)씨를 따라서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스즈키씨는 30여년전에 양돈연수생을 파견하여 신세를 진 오랜 친구이고 기초자치단체에 3선째 당선된 지방의원이다. 그리고 모돈 500두(비육돈 5,000두)의 전업양돈농가이다. 내일(23일)부터 사흘 동안 나를 안내해 줄 오오타니쇼스케(大谷昌右)나 스즈키씨의 자택이 있는 아이찌현(愛知縣)다하라(田原)까지 행사장에서 고속도로로 세 시간이상의 시간거리이다. 이동하면서 나눈 대화. 스즈키씨는 한일양국간에 추진되고 있는 FTA와 VISA의 체류기한 연장에 의한 일본의 노동시장의 잠식을 걱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 정반대의 논리로 설명하였다. 그 하나의 예로 어제 타고 온 고속정의 분위기를 이야기하였다. 어림짐작으로 승객의 3분의 2가 한국 손님들이고 일본이 더 득을 볼 것이라 말했다. 양돈은 어렵지만 버티고 있다고 하면서 법인이 아니지만 알기 쉽게 말하자면 가족들의 월급이 보장될 정도의 수준의 수익이라 말한다.

호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 오오타니씨의 부탁이라면서 한 밤중에 오오타니씨 자택에 내려준다. 한 가족처럼 대접해 주는 친절이 고마울 뿐이었다. 이번 여행의 첫째 목적은 행사참사이지만 두 번째는 (주)미카도육종농장의 고시베헤이(越部平八郎)회장의 묘소참배와 꼭 찾아뵙고 인사할 몇 곳이었다. 23일 아침 고시베회장 영부인에게 전화를 거니 이런 무더위에...하면서 묘소안내를 사양한다. 간곡한 요청에 내일 24일 16:00시에 만날 약속을 하고 오오타니씨가 내 손을 이끌고 길을 나섰다. 일본도 짐통무더위였다. 다하라→토요타시(豊橋)→토쿄→이바라기(茨城県)우찌하라(内原)의 일본농업실천학원에 도착하니 16:00시경이었다. 名譽學園長(加藤彌進彦 선생)과 加藤達人 학원장 부자를 함께 반갑게 만났다. 연락을 받고 얼마 후 愛鷄齋의 사이토지헤이(齋藤地平)사장도 달려와서 환담이 벌어졌다.

직장에서 퇴직하는 30대가 귀농위해 입학한다니...

일본농업실천학원은 8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사

립의 농업인육성의 교육기관이다. 요즈음의 학생입학 동향을 물었더니 “...그전과 같은 지원자는 없고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불경기로 귀농하려는 30대이상의 고령학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학습 분위기와 수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너무나 의외의 말에 나는 놀라고 말았다. 몇 가지 자료를 얻어서 쟁겼다. 애계원의 사이토헤이사장은 때에 들러서 영부인과 함께 해안가 숲 속의 환경과 분위기가 좋은 식당에서 단란한 저녁식사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깨끗하고 조용한 오오쇼오데인(鷗松亭)라는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쉬게 하여 주었다. 다음날 24일은 나리타인근의 旬の味産直센터까지 승용차편으로 고속도로를 두 시간 이상을 달려서 데려다 주었다. 愛鷄園그룹은 창업자에 이어 2대째인 삼형제가 주축이 되어 200만수의 일본최대의 채란양계농장이다. 3대 후계자들이 이미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대량생산체제인 현재의 채란양계시스템은 한계에 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동물애호와 환경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의 맥도널드는 대량생산한 양계장의 무정란을 쓰지 않으며 자연란 만을 쓰고 있다. 이런 추세를 주시하면서 우리 애계원도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애완용 개의 시장은 일본 돈으로 2조엔이다. 우리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사를 5명이나 두고 16개품종(?)의 혈통을 보증하는 우량강아지를 길러서 판매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대량생산 채란양계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리타인근의 産直센터의 다카하시(高橋)조합장의 안내로 도꼬로(所)이사가 마을 뒷산을 가꾸어 도시인들을 불러들이는 사업장과 전 조합장인 시이나(椎名)의원(기초단체의 5선의원임)의 농장으로 안내를 받았다. 도농농축교류사업에 착수하여 축사를 개조하여 식당과 숙소를 만들고 마침 이날이 토요일에다 방학 철이라 가족단위의 도시 손님들이 몰려와서 북적대고 있었다. 부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대성황이었다.

나리타역 앞에서 사이토헤이사장과 석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고시베부인과 약속한 장소로 시간에 맞추느라 게이세이(京成)의 특급 스카이라이나로 달려서 겨우 약속시

간인 16:00시에 닿을 수 있었다. 메지로(目白)에서 택시로 그리 머지 않는 시내에 묘소는 있었다. 꽃집에서 꽃다발 두개를 마련하여 헌화하고 묘비와 마주하니 왈각 슬픔이 복 바쳐 오른다. 인생의 무상함어여! 이승의 이름인 越部 平八郎회장은 常修院平等不觀居士라는 저승의 이름으로 누워서 말이 없구려. 합장 재배하고 재회를 기약하면서 물러나오니 큰 짐을 내려놓은 홀가분한 느낌이다.

말없는 비석과 마주한 생자와 사자의 재회약속과 대화

동경역에서 동북신간선으로 이와테(岩手)의 시즈구이시에 도착하니 밤 10시였다. 오가와씨가 역에 마중 나와서 차에 태우고는 어느 온천장으로 가서 늦은 시간에 온천을 하고 시원한 맥주로 피로를 풀었다. 일어나 살펴보니 호텔이름이 「森の風」였다. 늦으막하게 체크아웃하고 오가와목장으로 가서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을 가지면서 낙농의 요즈음의 사정을 물으니 송아지와 숫소값이 하락을 하였지만 겨우겨우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세무서에 신고한 청색신고서 카피를 건네준다. 경영내용이 그 신고서에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다. 오가와가쓰히고(小川浩彦)씨는 명문의 고교와 대학을 나와서 축산시험장에 근무하다가 안정된 월급쟁이 직장을 버리고 이 벽지산골의 개척지에 44년전에 단신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목장을 일구어 낸 내가 존경하는 억척의 지성 농민이다. 딸 둘은 결혼을 시켰는데 장남은 나이 40에 아직 장가를 못가서 부모 애를 태우고 있었다. 장남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수재로서 농림수산성 축산과에 근무하다가 귀농한 것이 노총각이 된 원인이었다. 흰칠한 장정의 체격에다 지성을 갖춘 이 노총각에게 시집 올 일본의 아가씨들이 없는가. 친구의 장남 장가 못 보내서 내가 더 안달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농사꾼은 장가도 못가는 이 세상의 끝간데는 어디일까.

25일은 모리오카에서 엄 회장과 합류하기로 약속한 토요일까지 약속시간에 닿을 수 있었다. 하카다에서 모리오카까지의 기차시간표로 조사하여 최동주처장을 통해서 알아보니 왕복 연장이 3,420km를 기차로 이동한 셈이다. JR Pass의 유효기간은 귀국하는 7월 26일 현재 하루가 더 남아 있었다. ㉞